

통계로 본 서울시민 건강 및 사망원인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한 삶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게 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민의 건강 및 주요 사망원인’에서는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건강행태 및 사망규모, 주요 사망원인 변화를 통계로 작성하였으며,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서울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주로 활용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2008~2013년) 및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03~2013년), 사회조사(2012~2013년) 등임.

목 차

[요 약]	1
1. 기대수명 및 주관적 건강수준	2
2. 음주율 및 흡연율	3
3. 비만을 및 비만 인지율	4
4. 연령별 건강행태	5
5. 지난 10년간 사망원인 변화	6
5-1. 사망자 추이	6
5-2. 주요 사망원인	7
5-3.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10세이상)	8

자료설명 및 유의사항

○ 2013 지역사회건강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작성목적 : 시·군·구 단위 주민 건강수준 및 관련 요인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작성방법 : 만19세이상 서울시민 2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 1:1 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년 8월 16일 ~ 2013년 10월 31일
- 조사주기 : 1년(매년), 최초작성년도 2008년
- 조사대상 연령 : 만19세 이상 인구.

○ 2013 사망원인통계(통계청)

- 작성목적 : 국민의 사망규모, 사망원인 및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여 인구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작성방법 : 사망원인통계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사망 신고서를 기초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사인을 집계
 - ▶ 신고누락이 많은 영아사망은 화장신고 및 모자보건법에 의한 신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완 (1999년)
 - ▶ 부정확한 사인 및 사망의 외부 요인(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은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200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2002년), 국방부, 해경(2008년) 등 기타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사인 보완
 - ▶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중 당해년도 사망자 집계하여, 사망자수 및 주요 항목 미상(연령, 사망원인 등)이 소폭 증가 (2009년)
 - ▶ 2009-2011년 영아·모성사망 및 사산에 대한 조사(사망원인보완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실시함에 따라 해당 항목 과거 사망자료('09~'10년)보완 (2011년)
 - ▶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망제표 일부 변경
- 작성주기 : 1년(매년)
- 자료 특징
 - ▶ 본 자료 중 1983년-2006년 수치는 2007년에 시계열을 보정한 결과로 이전에 연보를 통해 공표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 ▶ 사망원인 순위는 56개 사인(일반사망선택분류표)중 사망률 순위에 따라 선정
 - ※ 악성신생물(암)은 위암, 간암, 폐암 등 장기별 암을 통합하여 단일 사인으로 선정
 - ▶ 추후 조사자료(화장신고, 모자보건신고, 경찰청 등) 등에 의해 수치가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결과는 시계열 정비 시 반영될 예정
 - ※ 사망자 비중(%)과 사망률(10만명당)은 다르므로 사용에 유의하기 바람.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표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 합이 상위분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 필요함.

Ⅰ.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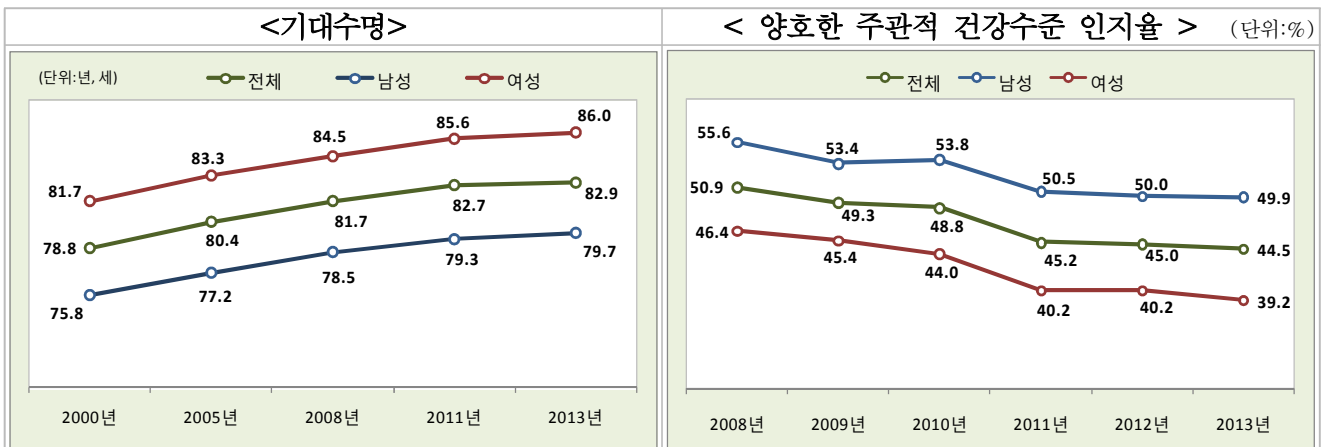
- (기대수명 및 주관적 건강수준) 기대수명 늘었지만, 건강 불안은 증가
 - ▶ 기대수명 : 2000년 78.8세 → 2013년 82.9세, 남자 79.7세 < 여자 86.0세
 - ▶ 자신의 건강상태 양호하다고 느끼는 비율 : 2008년 50.9% → 2013년 44.5%, 남자 49.9% > 여자 39.2%
 - ▶ 2013년 만13세이상 서울시민은 향후 증대할 복지서비스 1위는 건강(38.8%)이라고 답변
- (음주율 및 흡연율) 19세이상 성인 음주율 증가, 고위험 음주율 및 흡연율 감소
 - ▶ 19세이상 성인 음주율 : 2008년 57.7% → 2013년 60.7%, 남자 75.3% → 77.1%, 여자 40.8% → 45.1%
 - ▶ 고위험 음주율 : 2008년 20.3% → 2013년 17.5%, 남자 29.1% → 27.0%, 여자 8.0% → 6.0%
 - ▶ 흡연율 : 2008년 24.2% → 2013년 21.7%, 남자 45.6% → 40.6%, 여자 3.7% → 3.7%
- (비만율 및 비만 인지율) 남녀 모두 비만율 증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비만율이 높고 증가폭도 커
 - ▶ 비만율 : 2008년 20.6% → 2013년 23.2%, 남자 30.6% > 여자 16.0%로 남자 비만율이 여자보다 높음
 - ▶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 2008년 30.0% → 2013년 39.3%, 남자 37.5% < 여자 41.0%
 - ▶ 2013년 여성은 실제 16%가 비만하지만, 자신이 비만하다고 느끼는 인지율은 41%에 달해
- (연령별 건강행태) 30~40대 건강 적신호인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스트레스 모두 높아
 - ▶ 남자 흡연율 30대 51.9%, 40대 50.1% 순, 고위험 음주율 40대 21.2%, 50대 19.1%, 30대 18.7% 순, 비만율 60대 28.5%, 40대 26.1%, 30대 24.5%순, 스트레스 인지율 30대 34.4%, 40대 31.3% 순
 - ▶ 금주가 어려운 이유 1위 '사회생활에 필요해서(66.6%)', 금연이 어려운 이유 1위 '스트레스 때문(58.2%)'
- (사망원인 변화) 2013년 사망원인 암(31.0%)>뇌혈관질환(8.7%)>심장질환(7.9%)>자살(6.1%) 순
 - ▶ 2013년 총 사망자 4만2천명으로 지난 10년 새 11.6%(4,370명) 증가, 1983년 통계작성이래 최고 수준
 - ▶ 10년 새 사망자 70세 이상 39.4%(7,373명), 50대 6.8%(322명)에서 증가, 나머지 연령층 감소
 - ▶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2위 암, 3위 운수사고로 질병 외(사고 등) 사망이 많은 시기
 - ▶ 10대 : 자살 35.1%>암 15.2%·운수사고 15.2% 순, 20대 : 자살 51.6%>암 12.7%>운수사고 10.3% 순
 - ▶ 30대 : 자살 39.7%>암 17.6%>운수사고 6.1% 순, 10년 새 암사망 53.4% 감소, 자살은 43.7% 증가
 - ▶ 40대 : 암 32.0%>자살 19.7%>간질환 7.2% 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연령
 - ▶ 50대 : 암 40.8%>자살 10.6%>심장질환 6.5%순, 10년 새 자살 2.1배 증가(257명→536명)
 - ▶ 자살률 남성(54.6명)이 여성(16.0명)의 3.4배, 사망률 성비 2.9배 (남자 496.6명, 여자 169.5명),
 - ▶ 60대 : 암 48.8%>뇌혈관질환 6.9%>심장질환 6.5% 순, 뇌혈관질환 사망자 10년 새 1/3 수준 급감
 - ▶ 70세이상 : 암 25.9%>뇌혈관질환 10.4%>심장질환 9.0%>폐렴 5.3% 순, 폐렴 사망자 10년 4.6배 증가
 - ※ 사망원인별 사망자 비중(전체 사망자 중 사망원인별 구성비, 단위:%)과 사망률(인구10만명당 사망자, 단위:명)은 다름.

1. 주관적 건강수준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감소 (건강 불안 증가)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길지만,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인지율은 남성이 더 높아

▶ 기대수명 : 2000년 78.8세→2013년 82.9세, 건강상태 양호인지율 : 2008년 50.9%→2013년 44.5%
 만 13세이상 서울시민 향후 증대할 복지서비스 1위 「건강」 이라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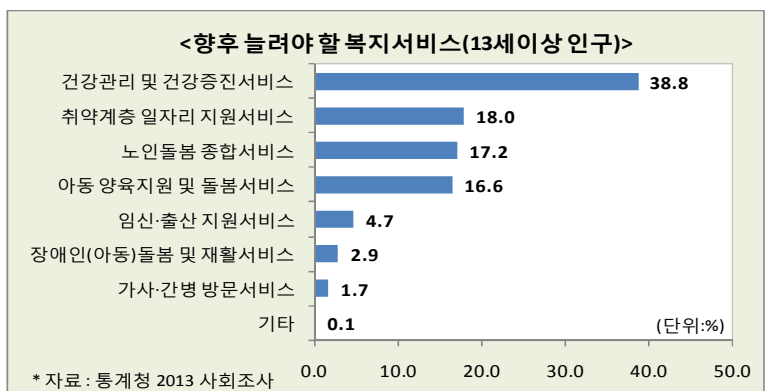
- 서울시민의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매우 좋음+ 좋음)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감소세를 보임.
- 서울시민 기대수명은 2000년 78.8세에서 2013년 82.9세로 증가한 반면,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 50.9%에서 2013년 44.5%로 감소.
- 기대수명은 여성이 86.0세로 남성 79.7세보다 높고,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비율은 남성이 49.9%로 여성 39.2%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더 길지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더 높음.



* 자료 : 통계청 「생명표」 및 「장래인구추계」, 국가통계포털(KOSIS)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기대수명은 해당연도에 태어난 신생아의 평균 생존연수로서 평균수명을 말함, 또는 해당연도 신생아(0세)의 기대여명임.
 -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만 19세이상 시민 중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 2013년 만 13세이상 서울시민들은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로 '건강'을 1위로 꼽았음.

- 증대할 복지서비스 1위로 '건강 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선택한 시민은 38.8%였으며, 2위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18.0%'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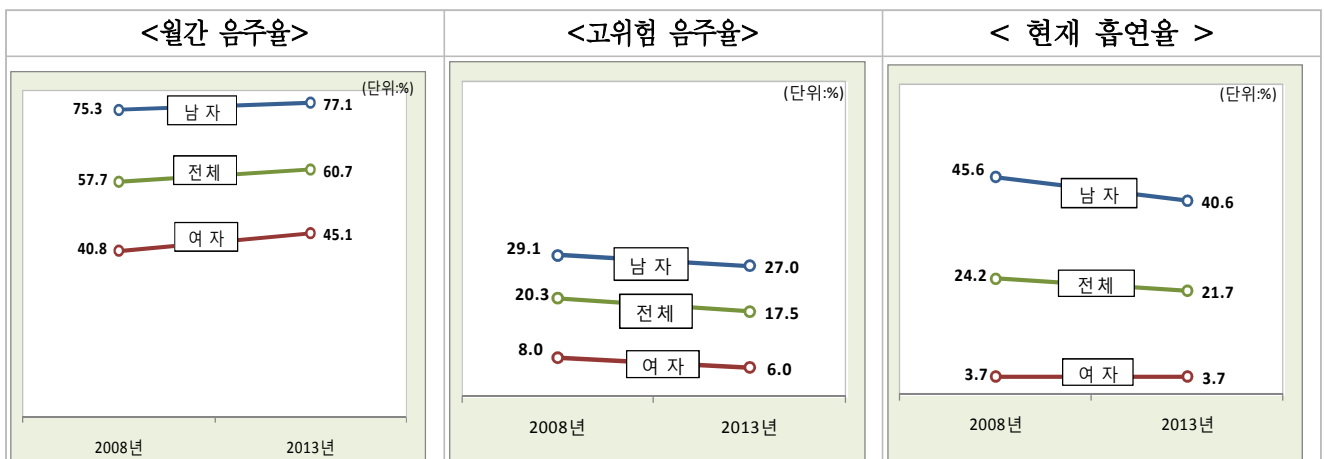
2. 음주율 및 흡연율

19세이상 음주율은 증가, 고위험 음주율과 흡연율은 감소

음주율은 여자 증가폭이 크고, 고위험 음주율은 남녀 모두 감소, 흡연율은 남자 감소에 영향

- ▶ 음주율 (2008년도→2013년) : 57.7% → 60.7% [남 75.3% → 77.1% 여 40.8% → 45.1%]
- ▶ 고위험음주율 (2008년도→2013년) : 20.3% → 17.5% [남 29.1% → 27.0% 여 8.0% → 6.0%]
- ▶ 흡연율 (2008년도→2013년) : 24.2% → 21.7% [남 45.6% → 40.6% 여 3.7% → 3.7%]

-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음주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동안 월간 음주율은 증가하였지만 고위험 음주율과 흡연율은 감소
- 먼저 19세이상 성인 월간 음주율(최근 1년동안 1달에 1회이상 음주)은 2008년 57.7%에서 2013년 60.7%로 증가했지만,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의 과도한 고위험 음주율(남자는 1회 음주량이 소주 7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 또는 맥주 3캔 정도를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은 20.3%→17.5%로 줄었음.
 - 월간 음주율은 남성이 2008년 75.3%에서 2013년 77.1%로 1.8%p 소폭 증가, 여성은 40.8%에서 45.1%로 4.3%p 증가하여 남성보다 음주율은 낮지만 증가폭은 더 높았음.
 -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2008년 29.1%에서 2013년 27.0%로 감소, 여성은 8.0%→6.0%로 감소함.
- 19세이상 성인 흡연율은 2008년 24.2%에서 2013년 21.7%로 감소했으며, 여성은 3.7%로 변동이 없으나 남자 흡연율은 2008년 45.6%에서 2013년 40.6%로 줄어 들어든 것이 전체 흡연비율 감소에 영향을 줌.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대상은 19세이상 성인임.
 - 월간 음주율 : 만 19세이상 최근 1년(365일) 동안 한달(30일)에 1회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
 - 고위험 음주율 : 최근 1년(365일)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현재 흡연율 : 평생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가끔 피움')의 비율

3. 성인(19세이상) 비만을 및 비만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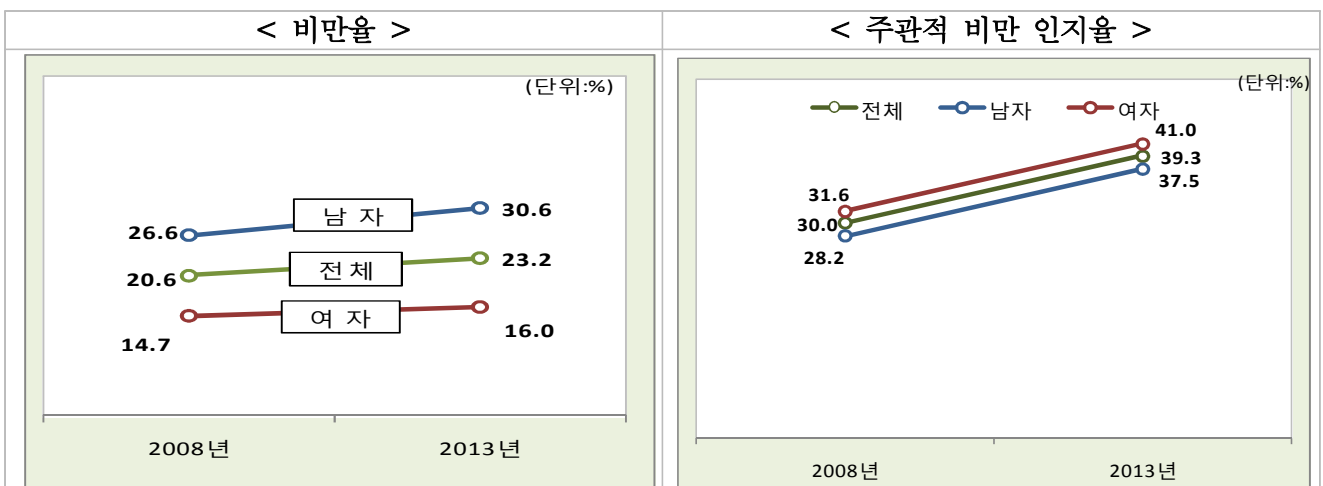
남녀 모두 비만을 증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비만율이 높고, 증가폭도 커

▶ 비만율 (2008년도→2013년 : 20.6% → 23.2% [남 26.6% → 30.6% 여 14.7% → 16.0%])

2013년 여성은 실제 16%가 비만하지만, 비만하다고 느끼는 인지율은 41%에 달해

▶ 주관적 비만인지율 (2008년도→2013년 : 30.0%→ 39.3% [남 : 28.2% → 37.5% 여 : 31.6% → 41.0%])

- 흡연을 및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비만율 보다 자신이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아짐.
- 비만율은 2008년 20.6%에서 2013년 23.2%로 증가했으며, 남자 비만율도 2008년 26.6%에서 2013년 30.6%로 증가, 여자 비만율도 2008년 14.7%에서 2013년 16.0%로 증가했음.
 - 남자는 여자보다 비만하고 비만을 증가폭도 크며, 10명 중 3명은 비만상태에 있음.
- 또한 스스로 자신을 비만(매우 또는 약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비만율 보다 자신을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실제로 비만한 사람은 남성이 많았으나 주관적으로 자신이 비만이라고 느끼는 비만 인지율은 여성이 더 높았음
 - 주관적 비만 인지율은 2008년 30.0%에서 2013년 39.3%로 증가했으며, 남 녀 모두 비만 인지율이 증가함(남성 2008년 28.2%→2013년 37.5%, 여성 2008년 31.6%→2013년 41.0%).
 - 2013년 여자는 실제 비만율은 16.0%이나 41.0%가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자는 실제 비만율은 30.6%이나 37.5%가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비만율 : 체질량지수(kg/m²) 25이상인 19세이상 성인의 분율, 체질량지수(BMI)=몸무게(kg)/키(m)²
 - 주관적 비만 인지율 : 주관적으로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19세이상 성인의 분율

4. 연령별 건강행태

30~40대 건강 적신호인 흡연·고위험 음주·비만·스트레스 모두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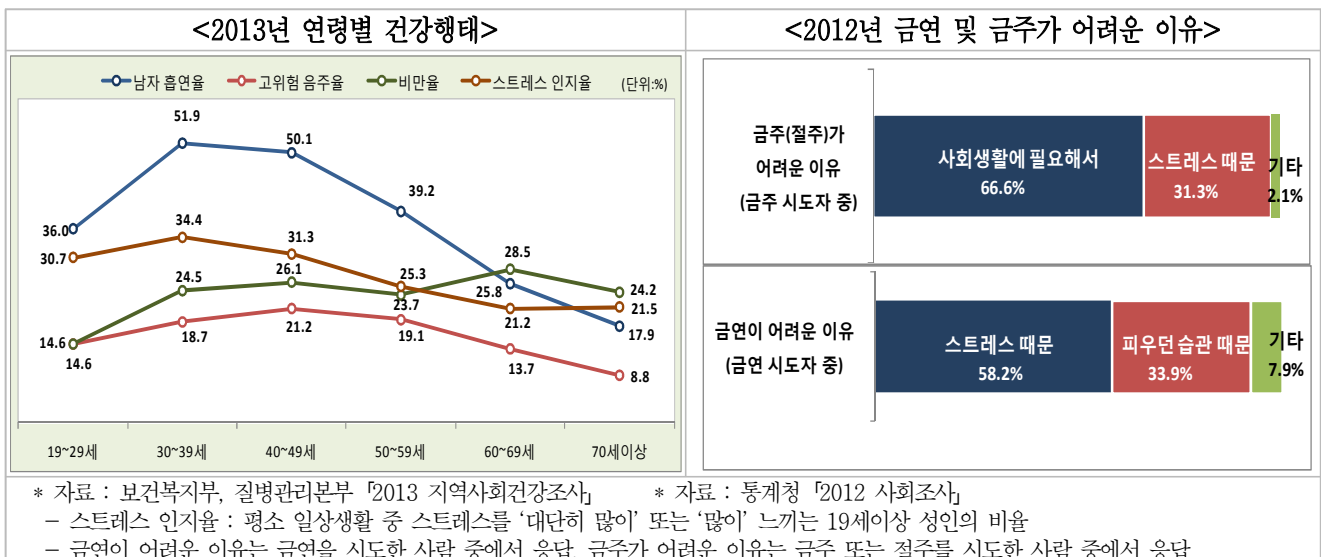
▶ 흡연 30~40대, 고위험 음주 30~50대, 비만을 60대, 30~40대, 스트레스 인지 30~40대 높아
 금연 시도자 금연이 어려운 이유 : 직장·가정 등 스트레스(58.2%), 피우던 습관(33.9%) 순
 금주(절주) 시도자 금주가 어려운 이유 : 사회생활에 필요해서(66.6%), 스트레스(31.3%) 순

□ 건강행태를 나타내는 흡연율, 흡연율, 비만을 및 스트레스 인지율로 보면, 30~4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

-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는 남성은 30대 51.9%와 40대 50.1%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음.
- 최근 1년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번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은 40대가 21.2%로 가장 높았고, 50대 19.1%, 30대 18.7% 순임.
- 비만율은 60대가 28.5%로 가장 높았고, 40대 26.1%, 30대 24.5% 순으로 나타남.
- 또한 평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는 응답에서도 30대 34.4%와 40대 31.3%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남.

□ 2012년 통계로 보면, 금연이 어려운 이유 1위는 '스트레스 때문', 금주가 어려운 이유 1위는 '사회생활에 필요해서'인 것으로 나타남.

-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가 금연이 어려운 주된 이유로 '직장이나 가정 등의 스트레스 때문(58.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기존에 피우던 습관 때문(33.9%)' 순임.
- 음주자 중 절주(음주량을 줄임)나 금주를 시도한 사람이 금주가 어려운 이유로는 '사회생활에 필요해서(66.6%)'와 '스트레스 때문(31.3%)' 순으로 응답함.



5. 지난 10년간 사망원인 변화

5-1. 사망자 추이

2013년 총 사망자는 4만 2천명으로 2008년 이후 5년째 증가, 1983년 통계작성이래 최고 수준
 전체 사망자 수 2003년 37,693명에서 2013년 42,063명으로 10년 새 11.6% (4,370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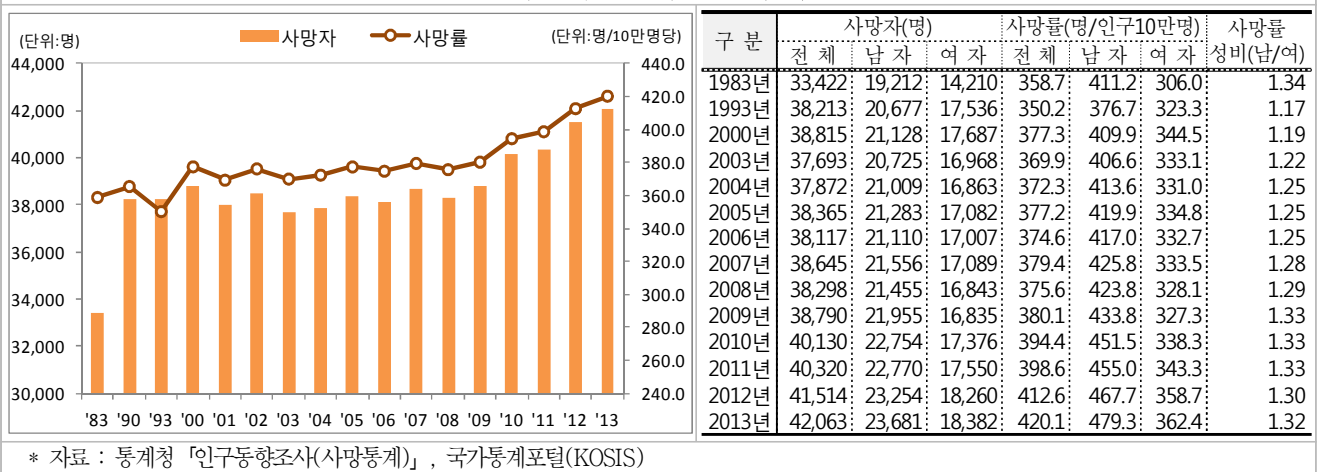
▶ 50대 6.8%(322명)와 70세이상 39.4%(7,373명) 연령층에서 증가,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

2013년 사망자 중 70세이상 62.0%, 60대 15.2%, 50대 12.0%, 40대 5.8%, 30대이하 5.0%

□ 2013년 서울 총 사망자수는 4만2,063명으로 2008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수와 사망률은 1983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임.

○ 남자 사망자가 여자보다 많으며, 사망률 성비는 최근 10년 동안 1.25~1.32로 남자가 높음.

< 사망자 및 사망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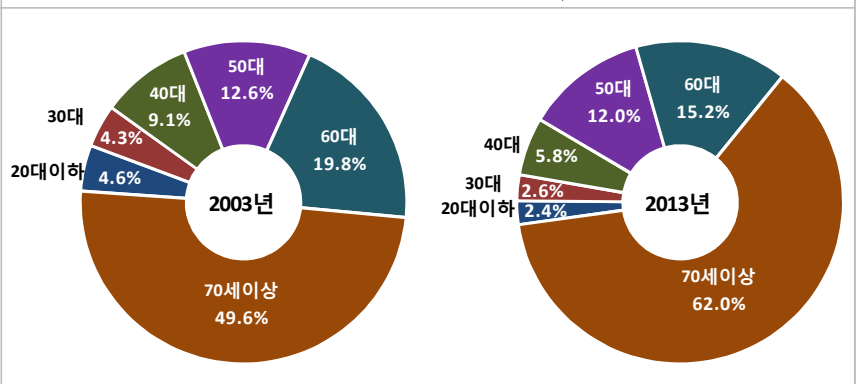
□ 2013년 전체 사망자 수는 2003년 대비 11.6%(4,370명) 증가했으며, 50대에서 6.8%(322명), 70세이상에서 39.4%(7,373명)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감소함.

○ 2013년 연령별 사망자 구성비는 70세 이상 62.0%, 60대 15.2%, 50대 12.0%, 40대 5.8%, 30대 이하 5.0%였으며, 70세 이상 비중이 2003년 49.6% → 2013년 62.0%으로 증가하고, 나머지 모든 연령에서 비중 감소함.

<사망자 및 구성비> (단위:명, %)

구분	2003년		2013년		10년새	
	사망자(A)	구성비	사망자(B)	구성비	증감 B-A	증감율
계	37,693	100.0	42,063	100.0	4,370	11.6
20대 이하	1,738	4.6	996	2.4	-742	-42.7
30대	1,605	4.3	1,092	2.6	-513	-32.0
40대	3,425	9.1	2,456	5.8	-969	-28.3
50대	4,745	12.6	5,067	12.0	322	6.8
60대	7,480	19.8	6,379	15.2	-1,101	-14.7
70세 이상	18,696	49.6	26,069	62.0	7,373	39.4
미상	4		4			

< 사망자 연령별 구성비(2003년, 2013년)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사망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5-2. 주요 사망원인

서울시민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2013년 전체 사망자 중 31.0%(13,028명)가 암으로 사망

▶ 사망원인 :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자살>당뇨병>폐렴>간질환>만성하기도>운수사고>알츠하이머병 순

▶ 10년 전에 비해 폐렴(12위→6위), 알츠하이머병(14위→10위) 10위내 진입,

고혈압성 질환(9위→11위) 및 추락(10위→13위)은 10위권 밖으로 밀림

지난 10년 새 암, 자살, 심장질환, 폐렴, 알츠하이머병 사망자 증가, 뇌혈관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감소

□ 2013년 서울시민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 다음으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알츠하이머병 등의 순임.

○ 2013년 10대 사망원인 중 10년전에 비해 순위가 상승한 사인은 자살(5위→4위)과 폐렴 (12위→6위), 알츠하이머병(14위→10위)이고, 고혈압성 질환(9위→11위)과 추락(10위→13위)은 순위 밖으로 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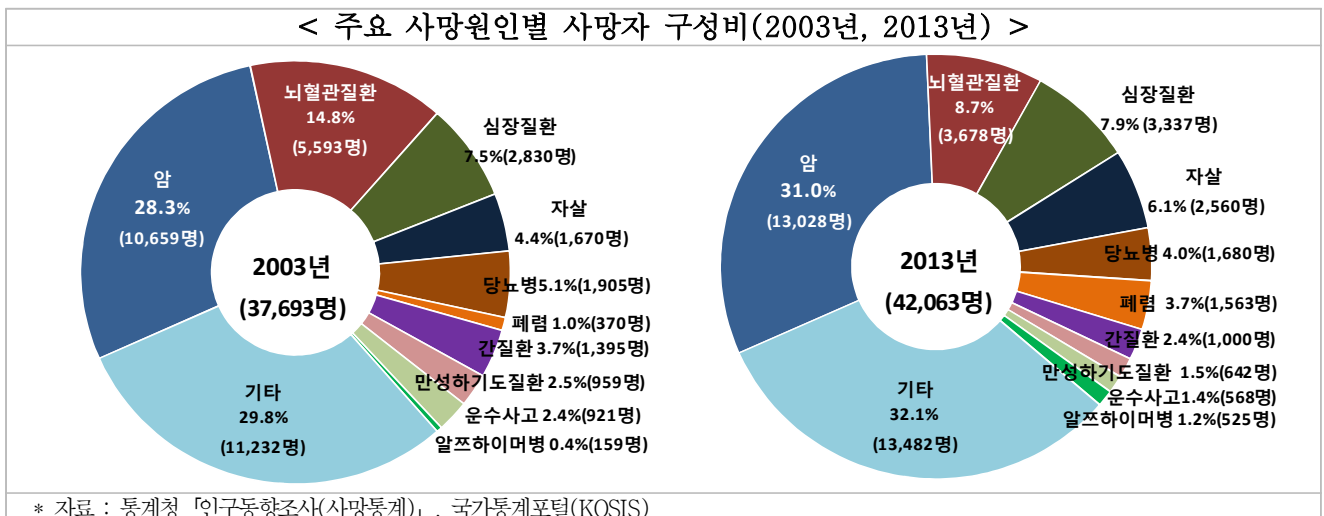
구분	전체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2003년 사망원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고혈압성 질환	추락
2003년 사망률	369.9	104.6	54.9	27.8	18.7	16.4	13.7	9.4	9.0	6.9	5.0
2003년 사망자	37,693	10,659	5,593	2,830	1,905	1,670	1,395	959	921	702	512
2013년 사망원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폐렴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알츠하이머병
2013년 사망률	420.1	130.1	36.7	33.3	25.6	16.8	15.6	10.0	6.4	5.7	5.2
2013년 사망자	42,063	13,028	3,678	3,337	2,560	1,680	1,563	1,000	642	568	525

*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 2013년 전체 사망자(42,063명) 중 암으로 31.0%, 뇌혈관질환 8.7%, 심장질환 7.9% 순으로 암 및 심·뇌혈관을 포함한 3대 질환으로 서울시민 47.6%가 사망했으며, 10년 전(2003년) 암·심·뇌혈관질환 사망자 비중 50.6%보다는 감소함.

○ 이는 암 사망자 비중은 2003년 28.3%에서 2013년 31.0%로 증가, 심장질환 7.5%→7.9%로 증가했으나, 뇌혈관질환 사망자 비중이 14.8%→8.7%로 크게 감소한데 기인함.

○ 또한, 사망자 비중(구성비) 중 자살('03년 4.4% → '13년 6.1%), 폐렴(1.0% → 3.7%), 알츠하이머병(0.4% → 1.2%)은 증가했으며, 당뇨병(5.1% → 4.0%), 간질환(3.7% → 2.4%), 만성하기도질환(2.5% → 1.5%), 운수사고(2.4% → 1.4%)는 감소함.



5-3. 연령별 주요 사망원인(1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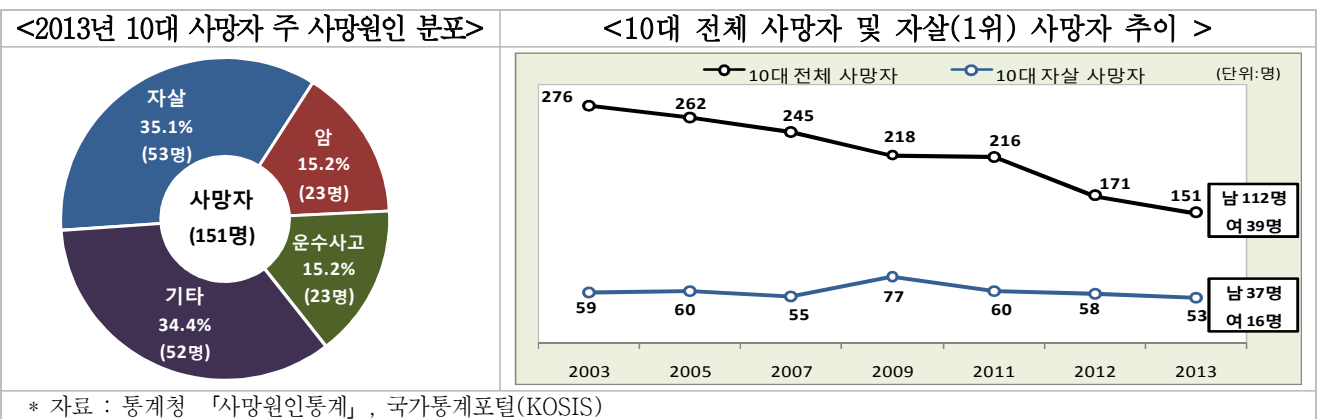
5-3-1. 10대 및 20대

2013년 1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2위 암·운수사고, 20대는 1위 자살, 2위 암, 3위 운수사고

- ▶ 10대 사망자 2003년 276명 → 2013년 151명, 원인은 자살 35.1% > 암 15.2%·운수사고 15.2% 순
- ▶ 20대 사망자 2003년 861명 → 2013년 552명, 원인은 자살 51.6% > 암 12.7% > 운수사고 10.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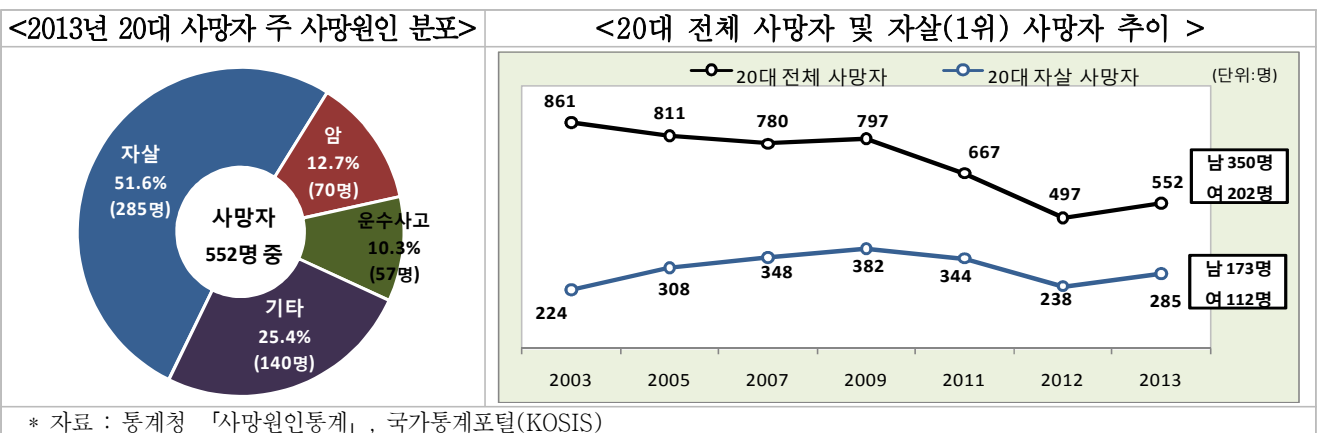
□ 10대 사망자 수는 2003년 276명에서 2013년 151명으로 감소했고, 2013년 사망원인 순위는 자살>암·운수사고 순으로 나타남.

-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은 2003년 59명에서 2009년 77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53명으로 감소
- 남자 사망률(19.2명)이 여자(7.3명)보다 2.6배 높고, 남자 사망자는 112명, 여자는 39명임.



□ 20대 사망자는 2003년 861명에서 2012년 497명까지 줄었으나 2013년에 552명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사망원인은 자살>암>운수사고 순임.

- 20대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은 2003년 224명에서 2009년 382명까지 높아졌다가 2012년 238명으로 줄었으나 2013년 285명으로 소폭 증가함.
- 2013년에 전년보다 사망이 증가한 원인은 자살률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대 사망자 552명 중 51.6%(285명)가 자살임.
- 2013년 남자 사망자는 350명, 여자는 202명이고, 남자 사망률(47.9명)이 여자(27.5명)보다 1.7배 높음.



※ 사망률 정의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5-3-2. 30대

2013년 사망원인 자살(39.7%) > 암(17.6%) > 운수사고(6.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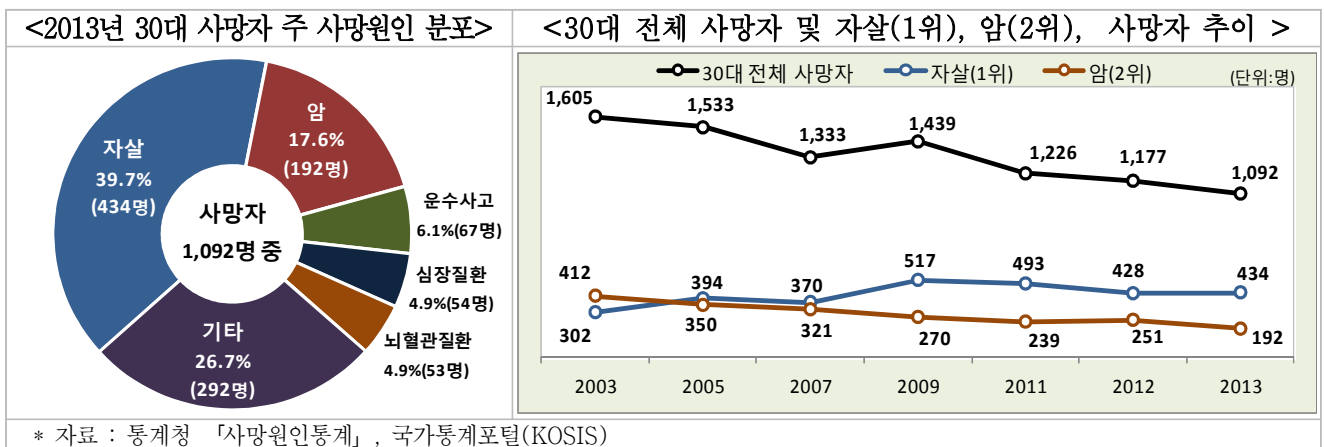
▶ 2003년 암 사망자가 1위였으나 지난 10년 새 암 사망자 53.4% 감소, 자살 43.7% 증가
남자는 자살 > 암 > 운수사고 순, 여자는 자살 > 암 > 뇌혈관질환 순

□ 30대는 본격적인 사회생활과 함께 음주와 흡연, 사회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각종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10대, 20대와 더불어 여전히 자살이 사망원인 1위이지만 암 사망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연령임.

□ 30대 사망자 수는 2003년 1,605명에서 2013년 1,092명으로 감소했으며, 사망원인 순위는 자살>암>운수사고>심장질환>뇌혈관질환 순임.

○ 2013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 사망자는 2003년 302명에서 2009년 517명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부터 400명대를 유지함.

○ 30대 남자 사망률(81.0명)이 여자(42.7명)보다 1.9배 높았음.



□ 2013년 남성 사망원인 순위는 자살>암>운수사고 순, 여성은 자살>암>뇌혈관질환 순임.

○ 남성 자살자는 2003년 201명에서 2011년 321명으로 높았다 2012년 252명으로 감소했으나 2013년 272명으로 소폭 증가함. 2013년 여성 자살자는 전년대비(176명 → 162명) 감소함.

<30대 성별 사망률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단위:명/인구10만명당,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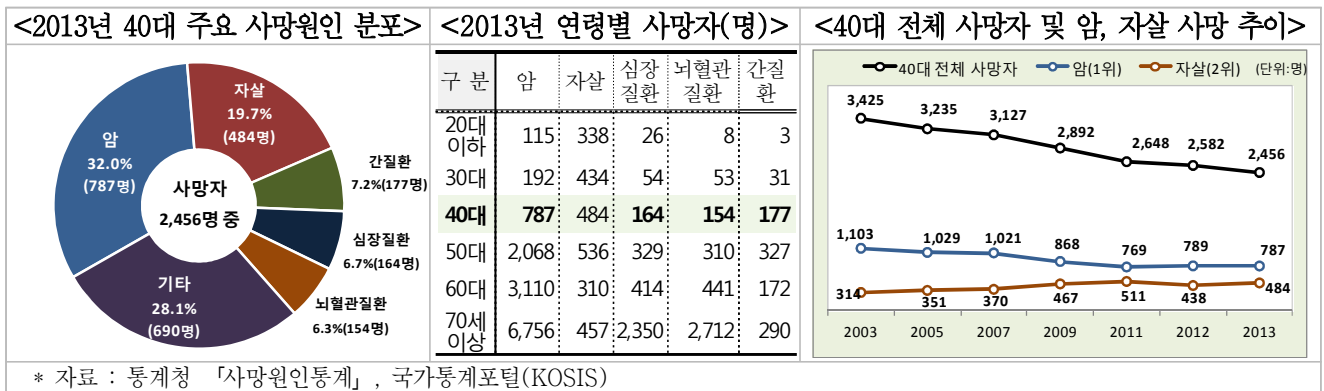
구분	30대 남자								30대 여자							
	사망률 전체	사망률 전체	사망자 자살	사망자 암	사망자 운수사고	사망자 심장질환	사망자 뇌혈관질환	사망자 기타	사망률 전체	사망률 전체	사망자 자살	사망자 암	사망자 뇌혈관질환	사망자 간질환	사망자 심장질환	사망자 기타
2013년 (구성비)	81.0	719 (100.0)	272 (37.8)	94 (13.1)	59 (8.2)	44 (6.1)	35 (4.9)	215 (29.9)	42.7	373 (100.0)	162 (43.4)	98 (26.3)	18 (4.8)	13 (3.5)	10 (2.7)	72 (19.3)
2012년	81.0	734	252	129	68	49	39	197	49.9	443	176	122	25	7	10	103
2011년	84.3	779	321	108	51	50	34	215	49.6	447	172	131	9	14	11	110
2009년	96.4	925	291	139	86	81	41	287	55.7	514	226	131	12	16	11	118
2007년	80.7	797	199	141	76	52	45	284	56.7	536	171	180	29	9	11	136
2005년	98.2	981	243	149	97	72	61	359	58.5	552	151	201	26	12	14	148
2003년	109.0	1,087	201	202	118	76	60	430	55.4	518	101	210	25	15	12	155

*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사망률 : 인구10만명당 사망자

5-3-3. 40대

2013년 사망원인 암(32.0%) > 자살(19.7%) > 간질환(7.2%) > 심장질환(6.7%) > 뇌혈관질환(6.3%) 순
 ▶ 40대부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많아지기 시작, 암 사망률이 자살률보다 높아져
 남자 암 > 자살 > 간질환 순, 여자는 암 > 자살 > 뇌혈관질환 순

- 40대 사망자는 2003년 3,425명에서 2013년 2,456명으로 감소했으며, 2013년 주 사망원인은 암이 1위이고, 자살,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순임.
- 자살 사망자는 40대이하 연령에서도 많았으나 암 및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40대부터 높아지기 시작함.
- 암 사망자는 2003년 1,103명에서 2013년 787명으로 감소, 자살자는 2003년 314명에서 2013년 484명으로 증가하였음.
- 40대 사망률은 남성(204.1명)이 여성(84.9명)보다 2.4배 높았음.



- 2013년 남성 사망원인은 암>자살>간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 순, 여성은 암>자살> 뇌혈관질환>간질환>심장질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암 중에서 남성은 간암>위암>폐암 순, 여성은 유방암>위암>폐암 순으로 많았음.
- 사망원인 1위인 암 사망자는 남성 2003년 690명에서 2013년 428명으로, 여성은 2003년 413명에서 359명으로 감소하였음
- 자살자는 남성 2003년 223명에서 2013년에 349명으로, 여성 2003년 91명에서 135명으로 증가함.

<40대 성별 사망률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단위:명/인구10만명당, 명, %)

구 분	40대 남 자								40대 여 자							
	사망률 전체	전체 사망자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사망률 전체	전체 사망자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전체	암	자살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기 타		전체	암	자살	뇌혈관질환	간질환	심장질환	기 타
2013년 (구성비)	204.1	1,732 (100.0)	428 (24.7)	349 (20.2)	147 (8.5)	140 (8.1)	112 (6.5)	556 (32.1)	84.9	724 (100.0)	359 (49.6)	135 (18.6)	42 (5.8)	30 (4.1)	24 (3.3)	134 (18.5)
2012년	210.9	1,793	401	311	168	153	85	675	92.6	789	388	127	41	25	25	183
2011년	223.3	1,902	427	374	177	140	106	678	87.2	746	342	137	52	22	23	170
2009년	243.6	2,081	509	313	226	159	118	756	93.3	811	359	154	46	36	24	192
2007년	263.1	2,231	595	249	242	174	129	842	103.0	896	426	121	65	28	32	224
2005년	278.7	2,367	610	264	289	189	193	822	98.2	868	419	87	71	38	41	212
2003년	300.1	2,527	690	223	334	168	217	895	101.9	898	413	91	92	36	46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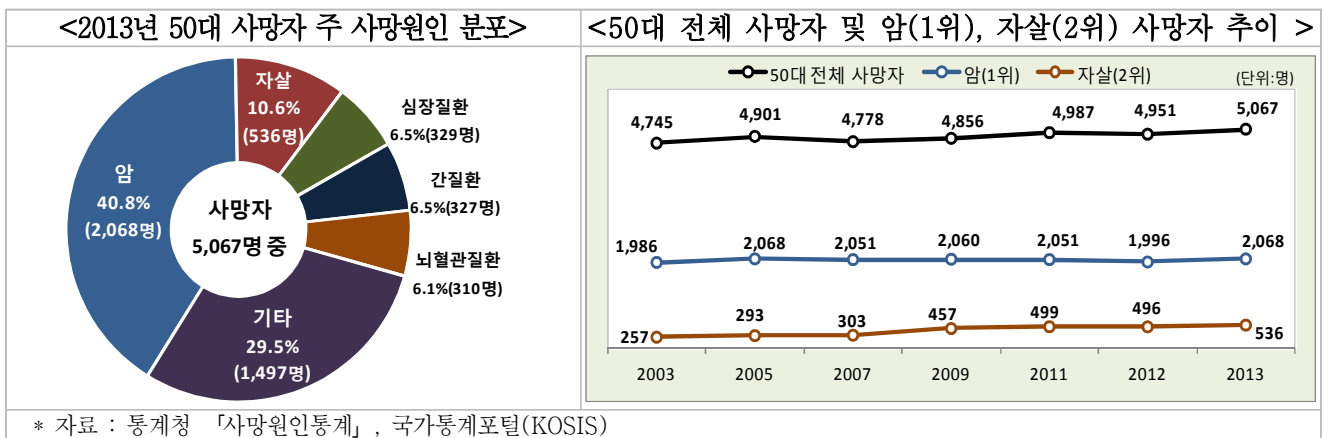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사망률 : 인구10만명당 사망자

5-3-4. 50대

2013년 사망원인 암(40.8%) > 자살(10.6%) > 심장질환(6.5%) > 간질환(6.5%) > 뇌혈관질환(6.1%) 순
 ▶ 10년 새 자살자 2.1배 증가했고, 남자가 여자보다 3배나 많음(2003년 257명→2013년 536명)
 남자는 암 > 자살 > 간질환 > 심장질환 순, 여자는 암 > 자살 > 뇌혈관질환 > 당뇨병 순

□ 50대 사망자는 2003년 4,745명에서 2013년 5,06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 주요 사망원인은 암>자살>심장질환>간질환>뇌혈관질환 순.

- 암 사망자는 2003년 1,986명에서 2013년 2,068명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 소폭 증가했고, 자살자는 2003년 257명에서 2013년 53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2013년 50대 남성 사망률(496.6명)은 여성(169.5명)보다 2.9배나 높았음.



□ 2013년 남성 사망원인은 암>자살>간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 순이고, 여성은 암>자살>뇌혈관질환>당뇨병>심장질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암 중에서 남성은 간암>폐암>위암 순, 여성은 유방암>위암>대장암 순으로 많았음.

- 남성 사망원인 1위인 암 사망자는 2003년 1,334명에서 2013년엔 1,309명으로 큰 변동이 없이 소폭 감소, 여성 암 사망자는 2003년 652명에서 2013년 759명으로 증가하였음.
- 50대 남성 자살자는 2003년 196명에서 2013년 408명으로, 여성은 2003년 61명에서 2013년 128명으로 증가하였음.

<50대 성별 사망률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단위:명/인구10만명당,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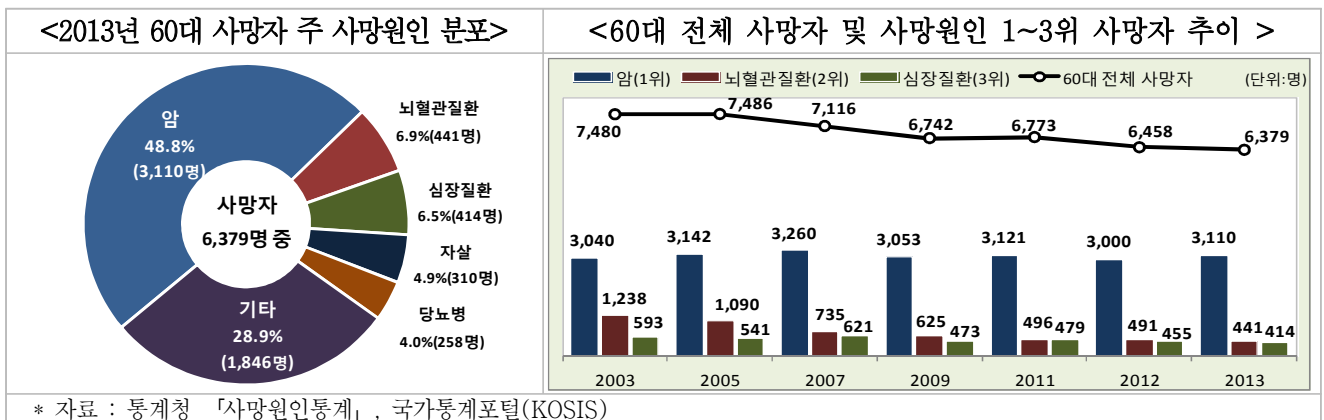
구 분	50대 남 자								50대 여 자							
	사망률 전체	전체 사망자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사망률 전체	전체 사망자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암	자살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기타		암	자살	뇌혈관질환	당뇨병	심장질환	기타		
2013년 (구성비)	496.6	3,711 (100.0)	1,309 (35.3)	408 (11.0)	292 (7.9)	288 (7.8)	216 (5.8)	1,198 (32.3)	169.5	1,356 (100.0)	759 (56.0)	128 (9.4)	94 (6.9)	46 (3.4)	41 (3.0)	288 (21.2)
2012년	496.0	3,657	1,314	359	296	260	203	1,225	163.4	1,294	682	137	86	36	40	313
2011년	507.7	3,643	1,310	365	292	231	204	1,241	174.0	1,344	741	134	87	25	37	320
2009년	524.4	3,478	1,325	322	279	275	211	1,066	194.9	1,378	735	135	103	33	52	320
2007년	555.3	3,439	1,320	216	284	264	267	1,088	204.1	1,339	731	87	117	39	65	300
2005년	620.6	3,542	1,347	223	349	282	313	1,028	227.8	1,359	721	70	162	37	48	321
2003년	640.8	3,415	1,334	196	357	262	356	910	243.6	1,330	652	61	185	48	70	314

*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5-3-5. 60대

사망원인 암(48.8%) > 뇌혈관질환(6.9%) > 심장질환(6.5%), 뇌혈관질환 사망자 급감
 ▶ 10년 새 뇌혈관질환 사망자 1/3수준으로 감소(2003년 1,238명 → 2013년 441명)
 남자는 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순, 여자는 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순

- 60대 사망자는 2003년 7,480명에서 2013년 6,379명으로 감소했으며, 2013년 주요 사망원인은 1위는 암이고, 다음으로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순으로 나타났음.
- 암 사망자는 2003년 3,040명에서 2013년에는 3,110명으로 큰 변동이 없이 소폭 증가 반면, 뇌혈관질환은 감소('03년 1,238명 → '13년 441명), 심장질환 사망자('03년 593명 → '13년 414명)도 지난 10년 간 감소함.
- 60대 남성 사망률(1032.3명)이 여성(402.0명)보다 2.6배 높았음.



- 2013년 남성 사망원인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자살>당뇨병 순, 여성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당뇨병>자살 순이고, 암 중에서 남성은 폐암>간암>위암 순, 여성은 폐암>대장암>유방암 순임.
- 남성 사망원인 1위인 암 사망자는 2003년 2,124명에서 2013년엔 2,094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여성 암 사망자는 2003년 916명에서 2013년 1,016명으로 증가하였음.
- 지난 10년 새 남성은 심장질환('03년 412명 → '13년 322명), 뇌혈관질환(827명 → 301명) 사망자 감소, 여성도 심장질환(181명 → 92명), 뇌혈관질환(411명 → 140명) 사망자 모두 감소

<60대 성별 사망률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단위:명/인구10만명당, 명, %)

구 분	60대 남 자								60대 여 자							
	사망률	전체 사망자 및 주요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사망률	전체 사망자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전체	전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당뇨병		기타	전체	전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2013년 (구성비)	1032.3	4,482 (100.0)	2,094 (46.7)	322 (7.2)	301 (6.7)	238 (5.3)	173 (3.9)	1,354 (30.2)	402.0	1,897 (100.0)	1,016 (53.6)	140 (7.4)	92 (4.8)	85 (4.5)	72 (3.8)	492 (25.9)
2012년	1087.8	4,621	2,117	333	329	237	238	1,367	400.5	1,837	883	162	122	101	68	501
2011년	1138.6	4,801	2,171	335	346	259	216	1,474	436.3	1,972	950	150	144	116	82	530
2009년	1179.2	4,809	2,123	361	429	268	210	1,418	446.3	1,933	930	196	112	115	92	488
2007년	1333.5	5,054	2,308	461	500	174	241	1,370	517.3	2,062	952	235	160	113	76	526
2005년	1486.0	5,260	2,218	379	725	210	278	1,450	601.0	2,226	924	365	162	126	80	569
2003년	1579.2	5,196	2,124	412	827	198	350	1,285	657.6	2,284	916	411	181	215	54	507

*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5-3-6. 70세이상

사망원인 암(25.9%)>뇌혈관질환(10.4%)>심장질환(9.0%)>폐렴(5.3%) 순, 폐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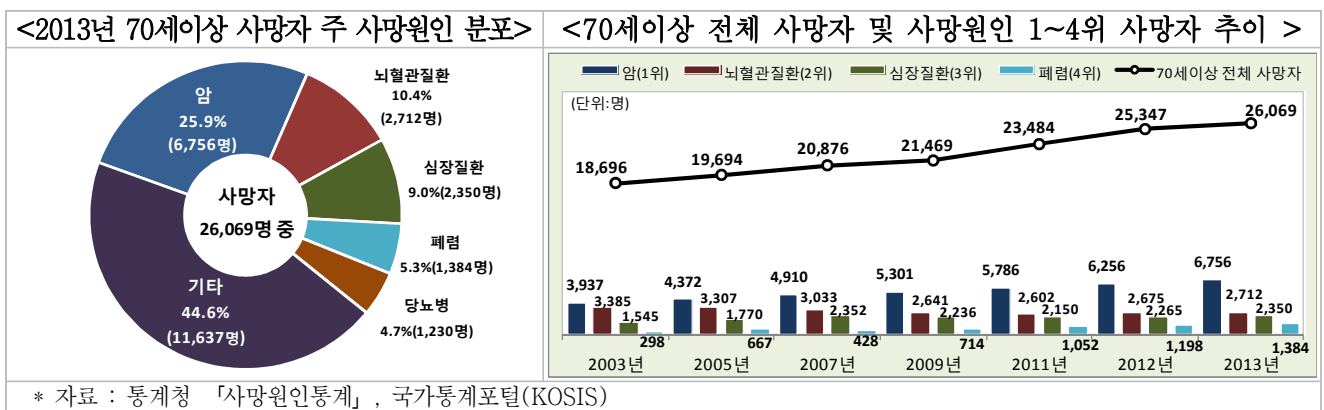
▶ 폐렴 사망자 10년 새 4.6배 증가(2003년 298명 → 2013년 1,384명)

남자는 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순, 여자는 암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순

□ 70세이상 사망자는 2003년 18,696명에서 2013년 26,06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주요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폐렴, 당뇨병 순임.

○ 2013년 암 사망자는 6,756명으로 '03년 3,937명 대비 증가하였고, 뇌혈관질환은 감소('03년 3,385명 → '13년 2,712명), 심장질환('03년 1,545명 → '13년 2,350명)과 폐렴('03년 298명 → '13년 1,384명)은 증가하였음

○ 70세이상 남성 사망률(4,296.1명)이 여성(3,330.5명)보다 1.3배 높았음.



□ 2013년 70세이상 남성 사망원인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폐렴>당뇨병 순, 여성은 암>뇌혈관 질환>심장질환>폐렴>당뇨병 순으로 남녀 사망원인 순위가 같았으며, 암 중 남성은 폐암>위암>대장암 순, 여성은 폐암>대장암>위암 순임.

○ 남성 사망원인 1위인 암 사망자는 2003년 2,148명에서 2013년엔 4,114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여성 암 사망자 역시 2003년 1,789명에서 2013년 2,642명으로 증가하였음.

○ 남성 뇌혈관질환은 큰 변동없이 소폭 감소('03년 1,291명 → '13년 1,197명), 심장질환('03년 556명 → '13년 982명) 증가, 여성 뇌혈관질환 감소('03년 2,094명 → '13년 1,515명), 심장질환('03년 989 → '13년 1,368명) 증가.

<70세이상 성별 사망률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단위:명/인구10만명당, 명, %)

구분	70세이상 남 자								70세이상 여 자							
	사망률 전체	전체 사망자 및 주요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사망률 전체	전체 사망자 및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추이						
		전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폐렴	당뇨병	기타		전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폐렴	당뇨병	기타
2013년 (구성비)	4,296.1	12,428 (100.0)	4,114 (33.1)	1,197 (9.6)	982 (7.9)	666 (5.4)	578 (4.7)	4,891 (39.4)	3,330.5	13,641 (100.0)	2,642 (19.4)	1,515 (11.1)	1,368 (10.0)	718 (5.3)	652 (4.8)	6,746 (49.5)
2012년	4,436.1	11,821	3,732	1,157	923	592	632	4,785	3,494.7	13,526	2,524	1,518	1,342	606	760	6,776
2011년	4,481.5	10,882	3,446	1,125	886	476	579	4,370	3,459.0	12,602	2,340	1,477	1,264	576	658	6,287
2009년	4,763.2	9,853	3,118	1,192	908	297	470	3,868	3,544.6	11,616	2,183	1,449	1,328	417	564	5,675
2007년	5,283.7	9,238	2,844	1,246	903	210	466	3,569	3,983.6	11,638	2,066	1,787	1,449	218	571	5,547
2005년	5,585.9	8,253	2,461	1,360	685	312	340	3,095	4,379.5	11,441	1,911	1,947	1,085	355	566	5,577
2003년	5,862.5	7,416	2,148	1,291	556	157	417	2,847	4,753.1	11,280	1,789	2,094	989	141	631	5,636

*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